

## 솔개의 선택 (7/23/2012)

하늘의 제왕 솔개는 기류를 따라 높이 나른다. 일명 연이 나는 것 같다고 하여 ‘검은 연 (Black kite)’라고 한다. 솔개의 수명은 40 년이지만 환골탈태를 통해 70 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철저한 도전과 변화를 말할 때 <환골탈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환골>은 뼈를 갈아 끼운다는 뜻이고, <탈태>는 태를 벗긴다는 의미다. 솔개는 지구상의 조류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라고 말한다. 하지만 솔개의 수명이 40 년 가까이 되면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발톱이 다 닳아서 더 이상 먹이를 채지 못하고 부리도 구부러져 더 이상 쓰지를 못하게 된다. 또 날개는 오래된 깃털과 곳곳이 부러진 상처여서 날기에 무겁기만 하다. <솔개의 선택>은 “이대로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이겨내고 새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솔개가 환골탈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의 눈에 띄지 않는 높은 절벽에 등지를 틀고 안전하게 숨어야 한다. 그리고는 못쓰게 된 멍텅한 부리를 바위에 쪼아 스스로 뽑아 버려야 한다. 이때 부리를 뽑기 위해 흘린 피가 바위를 붉게 물든다. 그리고 나서 서너달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돌아난다. 새로운 부리가 돌아나면 이번에는 그 새 부리로 낡은 발톱을 하나씩 쪼아서 뽑아 버린다. 그러면 날카로운 발톱들이 새로 돌아난다. 그런 다음에는 꺾이고 상처난 깃털들을 하나씩 뽑아버리면 새로운 깃털이 나면서 웅장한 날개가 된다.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날개가 다시 돌아날 때까지 대략 6 개월이 걸리는데, 그 과정을 환골탈태의 과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면 솔개는 약 30 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한다.

흔히들 <도전 의식>이나 <선택과 결정>을 강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우화이다. 위의 <솔개의 선택>이 우화이든 사실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50 대나 60 대 (일명 오류도)인 은퇴시점에서 새로운 비상을 위하여 환골탈태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잘살든, 못살든, 성공했든, 실패한 삶이든, 인생 황혼의 시점에서 새로운 목표를 정해 놓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관점은 우리의 긴 삶 속에서 누구나 겪는 삶의 질곡이다. 현실의 고통, 스스로의 한계,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이대로 죽고 싶은 절망과 좌절, 더 이상 한 발자욱도 걸을 수 없는 삶의 무게, 한심한 무능함, 모두가 떠나버린 듯한 외로움,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 달고 살아야 하는 지긋지긋한 질병들, 늘어나는 주름살과 부실한 육신, 상대적 빈곤과 멸시...등등,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다. 잊혀질만 하면 다시 불쑥 나타나는 불청객이라고나 할까. 지금의 어려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몇번인가 겪었던, 지금은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아스라한 아픔들이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이겨냈듯이 지금도 이겨내어야 한다. <술개의 선택>처럼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 선택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기에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이대로 이렇게 마감을 하기에는 그분에게 너무 미안한게 아닌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나오게 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살다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모두 접고 일단은 높은 절벽에 올라가 등지를 틀자.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분이 주신 삶과 시간의 가치를 깨닫자. 그런 다음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자. 다시 사는 날까지 그 세월이 10년이든, 30년이든, 정말 가치있는 삶을 살자. 메마른 땅위에 선 나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항상 배고픔을 유지해야 한다. 'Stay hungry.'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물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 물이 생명수임을 알지 못한다.

만약에 죽을만큼 그분께 눈물로 간구하여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날개를 얻는다면 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먹고 사는데 내 나머지 인생을 모두 소비할 것인가. 신은 공평하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부와 명예와 지혜와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믿음을 동일한 사람에게 모두 주시지는 결코 않으신다.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함수 공식은 각각의 행복 Factor 를 곱하면 누구나 제로가 되게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경제학은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성립되는 학문이다. 어느하나를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기대효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때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합리적인 선택이란 기대효용이 기회비용을 증가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다. 두사람의 이익이 상충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이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죄수 딜레마' 이론이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사업을 성공하기 위하여 하늘 높은줄 모르고 살았을 때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너무나 많았음을 통감한다. 반대급부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부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변할까.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까. 주님을 알기나 할까. 돈으로 무엇인들 못살까. 가난한 이웃을 알기나 할까. 가족들이 같이 모여 저녁 먹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가족이 서로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할까. 주변의 수많은 유혹들을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런 삶을 다시 살 수는 없다. 또 살아서도 안된다. 앞으로는 <기회 손실 비용>을 최소한 줄이고 <기대 효용 가치>가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찬란한 목표를 정해놓고 새로 태어난 솔개처럼 저 푸른 창공을 더 없이 높게 날아야 한다. 날개야, 날아보자....